

# 아픈 역사도 역사의 한 페이지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한다

### 100주년 맞은 일본식 사찰 동국사 '반면교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가 10월 26일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사를 세운 조던인 일본 조동종 40여 일본 스님들도 참석해 그동안 역대 동국사에 주석했던 스님들의 추모제를 봉행했다.

전남 군산 동국사주지 종평은 한국인보다 일본인들이 더 많이 찾는 사찰이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500여 개의 일본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일본식 사찰로 우리에게 낯선 곳이지만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진 곳이다. 동국사는 일본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일본 분위기가 가득하다. 대웅전, 요사채, 범종, 석불상을 비롯해 1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과거 청산을 이유로 일

제의 흔적을 없애기 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 후대에 교훈으로 남게 하겠다는 취지다.

동국사 건축물은 일본 에도(江戸)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 정면 5칸, 측면 5칸에 팔작지붕을 인 정방형의

대웅전과 전형적인 일식 건축인 요사채가 한 건물로 이어져 있다. 대웅전 기둥과 기둥들을 잇는 인방과 불단, 공포의 목재는 모두 일본 쓰기목(일본 향나무종)을 썼다. 대웅전 출입 공간인 정면 앞칸의 바다도 법당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선 채로 예배를 드리는 일본 불교 전통에 맞춰 시멘트로 마감된 것도 독특하다.

동국사는 1909년 일본 조동종 소속 우치다 붓칸(内田佛觀)스님이 창건했다. 일본불교는 1877년 부산의 개항과 함께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선 개항에 종교를 앞세운 다른 열강들처럼 일본도 일본불교를 앞세웠다. 순수한 불교포교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3일자로 일본 종교를 한국에 포교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찰령을 발령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불교는 전국에 병원, 출장소, 포교소 등을 건립하게 됐다. 해방

이후 남극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 재무·교무부장)이 '해동대한민국'의 준말인 동국으로 개명하고, 조계종 제24교구로 증여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동국사가 올해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10월 26일 100주년 기념법회에서 동국사 주지 종평 스님은 "아픈 역사도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동국사는 한국 근대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찰인 만큼 치욕과 질곡의 역사 현장을 잘 보존하여 우리 미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법문에서 "아픈 역사는 우리 모두의 참회기도를 통해 과거 고난사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일본 조동종 규슈 관구장 이케다 다이치 스님을 비롯한 40여 일본스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케다 스님은 "지난 역사를 초석으로 삼아 한일 불교문화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일제 강점기 36년간 일본인 스님들에 의해 운영된 동국사는 해방 이후 공식적인 교류는 없었다. 해방 60년 이후 불교문화 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이 나온 이날 법회는 한·일 불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한편 최근 조동종은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원상규명위를 통해 과거 침략전쟁에 가담한 것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희망건기로 생명을 나뉜다

### 생명나눔 광주전남

소아암백혈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경기 대회가 무등산 옛길에서 열렸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10월 24일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무등산 옛길, 희망 경기'를 5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빗속에서도 광주 무등산 제4수원지에 있는 청풍쉼터에서 원효사까지 5.35km의 등산로를 난치성 소아암백혈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등반했다.

현지 스님은 "생명나눔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시달리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

과 용기를 준다"며 "우리사회가 나눔에 익숙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지(초대여고 1년)학생은 "같은 또래 친구가 백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작은 발걸음과 마음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다"고 말했다. 양경민(광주 서초등학교 6년)학생은 "아픈 동생, 친구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계종소보회'는 원효사(주지 현지)에서 열린 회향식에서 100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지 스님, 법선 스님(왼쪽부터)과 양행선이 10월 24일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 경기'에 참여해 무등산 옛길을 따라 등반을 하고 있다.

## 사찰음식 인기 식을 줄 몰라

### 2010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사찰음식 홍보관 운영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사찰음식연구단(이하 연구단)은 2010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사찰음식 홍보주제관 운영을 통해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다.

10월 21~24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국내기업 150개, 해외기업 35개 회사가 참가했다. 국내 최고 요리사와 함께 진행한 명인강좌에는 적문 스님(한국사찰음식

연구회장), 대안 스님, 우관 스님, 정관 스님 등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이 참가해 다양한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현장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사찰음식 홍보주제관에서는 사찰음식 전시회, 사찰음식 명인강좌, 연일발 만들기 체험, 사찰음식 소개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일반관람객 43만여 명, 외국인관람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산 범어사

#### 보제루 불사 화엄재 봉행

조계종 제 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여)는 지난 10월 23일 보제루 해체와 보수의 원만한 불사를 기원하는 화엄재를 봉행했다.

범어사의 보제루는 조선 중기인 1827년에 건립된 부산의 대표적 불교 문화재다. 예를 올리고 49재 법회와 각종 법요식을 진행하기도 하는 곳이다. 음력 3월에는 불자들에게 금강계단을 만들어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제루 밑을 통과하여 대웅전을 향하도록 돼 있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6~7m 높이의 돌계단위에 배치돼 대웅전 법당 정면을 마주하고 있어, 대웅전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불사가 완공되면 범어사도 다른 사찰에서처럼 보제루 밑을 통과해 대웅전으로 향하게 될 뿐 아니라, 범어사 경내 보제루가 차지하던 면적만큼 넓어져 앞마당에서 대규모 법회가 가능해진다. 범어사 종합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불사는 2011년 완공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조선중기 건립된 범어사 보제루가 10월 23일 해체 보수에 들어갔다. 해체에 앞서 범어사는 원만 불사를 기원하는 화엄재를 봉행하고 있다.

## 전북불교 학인 "화합과 도약"

### 제10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

전북지역의 5개 불교대학 체육대회가 10월 23일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 주최로 올해 10회째를 맞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대도와 대화합으로 미래 불교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지역 기관장과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화엄, 전복,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 등 5개 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배구, 탁구, 단체줄넘기, 탁

구, 단체 달리기, 화합의 줄다리기의 5개 종목과 열린 응원으로 펼쳐졌다. 전북사암승가회 회장 원행 스님은 원해 스님이 대독한 대회사에서 "중단 없는 정진과 자기 성찰을 통해 거룩하고 수승한 불교대학인들이 전북불교의 미래를 비취 달라"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전법과 포교가 없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지성불교, 복지 불교를 위해 전북지역 불교대학 인들은 화합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 김제 금산사 1411주년 개산대재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1411주년 개산대재가 10월 27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김제 금산사 1411주년 개산대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선운사 법현 스님,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

원주 전북도지사 등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개산대재는 조사전에서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한 조사 스님들에 대한 차례제에 이어 육법공양으로 시작됐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1411년의 역사를 가진 금산사가 중생들에게 희망과 안락을 전해주는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조사스님들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금산사와 함께한 의·승병

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지성불교, 대중불교, 대승불교운동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회에서 "불교의 중심사상은 자작자수, 자립자득의 인연법에 있다"며 "불자들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 남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를 실천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소통하는 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는 열 가지 선행을 하는 서원을 다짐하고, 형형색색의 등을 밝혀 마음을 자비롭게 하는 관등 법회,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실용성인 특허의 기술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높이 : 120cm  
-원동폭 : 45cm  
-받바너폭 : 30cm  
-무게 : 25kg